

지옥은 어떤 곳인가? (1)

신학박사 조 덕운

어느 누구도 지옥에 대하여 듣거나 대화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난 수 십년간 개신교 교회들에서 목회자들이 지옥, 죄, 벌, 십자가 등에 관하여 설교하는 빈도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 축복, 영원한 생명, 격려와 도움 등에 대하여 설교하기를 좋아하고, 신도들은 그런 목회자를 따르고 좋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목회자들이 성경의 부정적인 제목들을 가능한 회피하고 반면에 긍정적이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제목들로 설교를 구성함으로써 인기에 영합하는 목회를 해야만 성공적인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도를 따른다고 하며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예수의 언행을 닮아서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 [천국]보다 지옥에 대하여 더 많이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축복을 강조하기 보다 “지옥에 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설교를 더 자주 하심으로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소리 높혀 외치신 분이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셨으므로 자신의 소중한 피조물인 인간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간절히 외치신 것입니다.

1. 과연 지옥은 존재하는가?

과연 지옥은 존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매우 간단한 해답은 형무소 [과거에는 교도소를 이렇게 불렀습니다]가 존재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물론 현대 국가들에서 모두 교도소들이 존재합니다. 한 국가에는 법이 있어서 사회의 규범을 정해주고 그 법을 위반하면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범법자는 교도소에서 형을 살아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 사회에 정의[JUSTICE]가 있으므로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곳이 존재합니다. 같은 논리로, 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스스로 정한 율법이 있으며, 이를 범한 죄인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 [公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a. 심판과 지옥

이와 같이 창조주께서 세우신 법 질서는 반드시 모든 피조물, 특히 인간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체제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현대 국가의 통치 체제와 통치 이념들이 대부분 서구 기독교 국가들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으며, 그러한 통치 체제와 이념은 대부분 성경에 바탕을 두고 수립되고 발전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의 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재판을 받고 그 벌로서 교도소에서 일정 기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범 죄인이 되는데 자비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회개하고 올바른 영혼들이 되도록 ‘유예기간’을

허용하셨다가, 죽음 후에 죄인은 지옥으로, 의인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왕국 [Kingdom of Heaven]'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 하늘 왕국을 '천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죄인이 지옥에 가게 되는 필연적 귀결은 이 세상에서 범죄인이 교도소에 가야 되는 것과 같이 반드시 닥쳐올 귀결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혹시나 지옥이란 것은 기독교에서 사람들을 겁주게 하기 위한 개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선언이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무서운 진리를 여러번 확실히 선언합니다. 예수님도 선언하셨고, 구약의 대언자들도 선언했고, 사도들로 선언했습니다. 수십번이나, 의심 없이, 명쾌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선언의 내용을 잘 알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보낼 것인가의 결정은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결정입니다.

b. 부활과 지옥

지옥에 관한 신학적 교리의 바탕에는 다음 세가지의 선행 교리에 의하여 밀받침 되고 있습니다.

- 1) 하나님의 공의 [Justice of God]: 창조주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은 그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 2) 영혼의 심판 [Judgment of souls]: 창조주는 우리 인간에게 몸과 영을 주었는데, 사망하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 없어지지만, 영 [soul]은 하나님에게 되돌아 가게 되어 때가 되면 모두 빠짐없이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 3) 영혼의 부활 [resurrection of souls]: 악한 사람이건 의로운 사람이건 모든 사람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펼쳐 질 때에 모든 영혼이 부활하여 심판석 앞에 서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사라져 없어지는데 어떻게 살던 무슨 상관인가"라고 무책임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된 영혼들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니 이 얼마나 무서운 진리입니까? 이 진리는 여러분이 싫다고 하여 회피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선택적 옵션이 결코 아닙니다. 태양의 빛이 싫다고 하여 이를 가리고 벽 뒤에 숨어도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죄인의 영원한 형벌, 즉 영벌 진리는 불변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2. 구약 성경의 지옥

구약 성경에서 지옥은 히브리 단어로 Sheol [시올]로 표현되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 총 31 회 언급됩니다. 한편, 신약 성경에서 지옥은 그리스 단어로 Gehenna [게헨나]로 표현되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 도합 23 회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옥의 특성에 관하여 구약과 신약의 표현들이 일치하고 있는데, 특히 지옥에서 영혼들이 받게되는 형벌이 일정 기간에 국한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점에서 구약과 신약의 구절들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의 말씀에서, 지옥에 관한 언급이 매우 구체적이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요건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지옥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두 군데 구절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사야 66: 22-24 [흠정역]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 있을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아와 경배할 것이요,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우리는 먼저 이 구절들이 묘사하는 장면이 연출될 상황에 대하여 알아야 지옥에 관해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 상황은 종말의 때에 악의 세력이 모두 정복된 후에 주님의 왕권이 온 세상에 확립되고 난 후의 상황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모두 정복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이 수행되어 모든 악한 영혼들이 사탄의 세력과 더불어 영원히 타는 지옥의 불에 던져진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아와 경배할 것이요.” 모든 영혼들이 부활하여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며, 그 중에 의로운 사람들은 온 세상의 왕중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와 경배하게 되는 광경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주”를 예수님이라고 직접 지칭하지는 않지만, 요한 계시록에서 우리는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임을 알게 됩니다 [계시록 20:6].

그런데,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지옥이 멀리 이격되어 아무도 쉽게 보지 못하는 곳에 있을 것이 아니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지옥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보리나’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지옥을 묘사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누가 복음 16: 19-27]. 죽은 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악한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골짜기가 있지만 서로 볼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부자는 자신이 처한 처지가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한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이 있는 복된 곳에서 자신을 천대 하였던 부자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겠습니까?

이사야의 지옥에 대한 묘사의 특이한 점은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벌레’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의 죽은 육체를 벌레가 먹는데, 시간이 지나서 벌레들이 사체를 다 먹었으니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몸동아리를 벌레들이 먹는 모습을 이 악한 영혼들은 영원토록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니 얼마나 처참한 저주스런 상황입니까? 그리고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불이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 것에 대한 회환이라고 말하며, 어떤 분은 이들이 항상 만족시키면서 살았던 육신적 열망의 불이 영원토록 죽지 않는데, 그 열망을 채워줄 육신이 이제 죽어 있지만, 그 열망의 불은 죽지 않고 자신을 영원토록 괴롭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살아 있는 영혼이 자신의 육신을 태우는 불의 괴로움을 느끼면서 영원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니 이처럼 처참한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로,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향유하면서 보냈다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진 이 사람들은 그들을 내려다 보고 있는 구원받은 의인들의 눈에는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으로 여겨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주 패러다임의 변경 [paradigm shift]에 대하여 얘기 합니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모두 달라져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 심판 후의 상황을 보도록 권고합니다. 우리가 과연 주 예수님 앞에서 승리한 무리로 지옥의 참담한 모습을 관광하게 되는 복된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아니면, 영원히 괴롭히는 벌레와 불에게 태움과 소멸을 당하는 처참한 육체를 스스로 쳐다 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눈길을 느끼면서 경멸과 수치를 영원토록 느끼면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기에 땅이 꺼지는 회한으로 영원의 시간동안 괴로움을 당하는 영혼이 될 것입니까? 우리가 이생에서 당면한 매우 심각한 결정입니다.

다니엘 12: 1-3

그때에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이르러니 그것은 민족이 있는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의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의 예언서 중 12 장의 첫 부분은 종말의 시기와 그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의 천사장이 하늘의 군대를 이끌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적 그리스도와 그 일당, 그리고 복음을 거부한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싸우고 그들을 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의 때에서 구출을 받을 것을 얘기함으로써 종말을 앞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종말의 시대에 있을 큰 환란으로부터 성도들은 구출 받을 것이라는 소망이니, 이것만 해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선택입니까?

종말의 시간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 “땅의 티끌 중에서 잠자는 영혼들”이 모두 부활되어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흡사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수치와 치욕의 처지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니, 우리가 아무리 지옥을 싫어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도, 우리 모두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을 대언자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아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상황은 신약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 20 장 11-15 절에 좀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11-14 흥정역]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12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13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14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우리의 인생은 잠깐 뿐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사망의 다리 너머에 다가올 영원한 시간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수험생이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두고 고교 3 년의 기간을 허비한다면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이후에, 심지어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혀 있더라도 심판의 때가 되면 주 예수님이 주관하실 심판석 앞에 서야만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세에 있어서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